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아서 20:10-13	제2독서	로마서 5:12-15	복음	마태오 10:26-33
--------	------	----------------	------	-------------	----	--------------

◎말씀 < “사랑받는 이로서의 당당함” >

생활 방역을 하면서 잘 지내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방역에 익숙하여 불편함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덜 먹고 덜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덜 나오고 먹거리 생태계도 좀 안정적이겠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늘이 맑아지겠지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아직 많은 교우들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님이 우리를 억수로 사랑하니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10,28)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마태10,28)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과 예수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만 ‘완벽하게’ 지키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법보다 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 공동체를 언제든지 뭉개버리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바리사이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먼저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니” 위선을 피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들의 위선과 독선 그리고 거짓의 말과 행동으로 이기적인 이익과 불의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포장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거짓은 조만간에 드러나기 마련이니 ‘진실’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려는 행동을 가로막는 적들과 싸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하느님은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을 마냥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상하게 돌보시는 아버지’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새보다 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에게 든든한 후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이어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위선과 거짓을 버리고, 두려움 없이 당당히 맞서야 하겠습니다.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지난주 우리들 정성	
6월23일(화)	연중 제12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무금 주일헌금	\$ 6,170.00 \$ 915.00
6월24일(수)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미사예물 성소후원	\$ 320.00 \$ 219.00
6월25일(목)	연중 제12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사회복지 성물방	\$ 281.00 \$ 0.00
6월26일(금)	연중 제12주간 금요일		기타수입	\$ 700.00
6월27일(토)	연중 제12주간 토요일		합 계	\$ 8,605.00
6월28일(일)	연중 제13주일	오전 9시 오전11시	미사참례자	학생: 2명 성인: 69명

교무금 봉헌자	정린(1-12월)박문교(5-10월)김양순(4-8월)최정신(5-7월)한삼.송민자(5-6월)김규대.조윤희.권영일.이서향(4-6월)이재덕.엄용덕(3-6월)김길록(4-5월)최재진(3-5월)조영진(1-5월)성영진.김평옥.김영숙((6월)
------------	--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하느님과의 씨름은 기도의 은유” - 프란치스코교황,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 발췌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은 최고의 재능을 현명하게 발전시킨 사람으로 자신의 독창성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처음부터 야곱이 그의 형 에사오와의 어려운 관계에 대해 알려줍니다. 야곱은 비록 동생이지만 속임수를 통해 아버지 이삭의 장남 에사오의 축복을 가로챱니다. 이것은 ‘파렴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 시작일 뿐입니다. 야곱은 걸 보기에 자기 자신의 재주를 통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관리합니다. 형에게서 도망쳤어도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유망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무언가 허전한 틈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타지에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자 여전히 그의 형제가 살고 있는 ‘옛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여행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잠깐 멈추고 고향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워합니다. 그가 홀로 있는 동안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창세 32,25) 교회는 이를 전통적인 교리문답을 통해 ‘신앙의 싸움과 인내의 승리인 기도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밤새 낯선 사람과의 씨름은 상대방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때리면서 끝나게 됩니다.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은 후 “네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29절)라고 말합니다. 낯선 사람은 야곱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지만 대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하느님을 대면했다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하느님과의 씨름은 ‘기도의 은유’입니다. 항상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믿은 야곱은 비로소 자신이 떨고 두려워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하느님과의 씨름 후 마침내 하느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밤, 어두운 순간, 죄의 순간, 방향감각 상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약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이 그분에 의해 변화되도록 허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
엄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이상일.마리아
곽화근.요한
- ◎기도 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연	양베드로, 양안당의 부모와 김로사, 양다니엘 영혼	윤태옥안나	생	본당 요셉회, 안나회 어르신들의 영육간 건강	김안셀모가정
생	곽화근.요한	곽유경.데레사			
생	전기례.베레나	여성회	생	정아가다, 이요안나	윤태옥안나
생	안선미.미카엘라	진엘리사			

간
장
종
지

◎내 은총은◎
내 행운은 당신을 드디어 알게 된 인연, 내 은총은 이 세상의 마지막 길을 알게된 인연,
내 행복은 당신을 통해 세상을 모두 느낄 때-- 용서받고 다시 또 받을수있는 나를 생각할때.
마종기 노렌조.시인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

**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

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

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



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

**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

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

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

**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

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

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

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

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

장 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

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

게스관광

(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

Suzie Hair World

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

초원의 집

(어르신 가정 양로원)
8094 Lone Rd
Slough House
전수자.클라라
(916)807-7187
(916)591-0179

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

**Payee to:
St.J.H.C**

♡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 1.미사 재개에 따른 미사시간
주일미사;일요일 오전9시.11시.성당
평일미사;화요일.목요일 오후7시30분.성당
모임 및 회합.행사 중지는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장합니다.
미사참례자는 이름과세례명.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2.본당소독봉사(매주일9시미사후)
이번주:사목회 회장단
다음주:본당 울뜨레아
- 3.사순절 저금통 봉헌
사순절 동안 단식과 금육.희생의 몫을
봉헌해주세요.
- 4.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영명축일:29일(월) 축하식:28일(일)교중미사중
축하드리며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5.우편이나 사무실로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봉헌해주신 신자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동안 미사가 없었던 관계로 인하여
본당재정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밀린 교무금과
주일헌금을 봉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6.감사합니다
주보광고:Hair Story(\$150)
감사헌금:김양순(\$500)
- 7.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개인용 방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유아방)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1. 다음의 교우들은 본당 공동체 미사에 참여
하지않고, 가정에서 대송으로 주일미사참례
의무를 대신합니다.
 - 영유아와 그의 부모, 기저질환자, 노약자,
연로한 어르신 교우
 - 전염병 확산의 우려로 인한 가족의 반대로
미사 참석이 어려운 교우.
 - 코로나19로 인해 미사에 참석하는 것에 심리적
으로 큰 부담감을 갖는 교우.
2. 미사 참례시 안내사항
 - 미사 전후에 성당을 소독합니다.
(미사 장소와 친교실, 화장실 등)
 - 미사 참례자는 성당 입구에서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갑니다.
 - 미사 참례자는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합니다. 다만, 가족은 예외입니다.
 -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
하고 성체를 모실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 미사중 신자가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응답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하고, 성가는 필요에 따라 독창이나 오르간
반주로 대신합니다.
 - 성체분배 전, 주례 사제는 제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만 외치고 성체분배
시에는 사제와 성체분배자 모두 침묵 중에
성체를 분배하고, 양형 영성체와 입으로 하는
영성체는 금지합니다.
 - 미사 중(평화의 인사등) 뿐만 아니라,
미사가 끝난 후에도 악수 등 다른 사람과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세계 응답 하소서

전례봉사	연중제12주일(6월21일)	연중제13주일(6월28일)	연중제14주일(7월5일)	연중제15주일(7월12일)
해설	오민정.크리스티나	최금주.요안나	김은선.제노베파	김선영.플로라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송돈희.요셉	김규철.레오
헌금위원	레지오 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	레지오단원